

## 20세기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조정미 · 유희<sup>†</sup>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 A Study on the Image Communication of Military Style in 20th Century

Jungmee-mee Cho · Hee Yoo<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8. 5. 6. 접수)

#### Abstract

Military style is not limited to a single period but represents various image communications related to items, synthetic images and different periodical culture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mmunicational function of the military style beginning from the 1st world war up to the modern days, and furthermor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military styles in different periods by studying the nowadays various symbols of the military style in denotative and connotative aspects. The research method is documentary studies through the literature and academic paper, and examined masters' and doctors' thesis, domestic and overseas books and fashion magazines, photographs and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internet. As a result, first, the military style is a significant fashion code in understanding modern fashion by serving as a strong communication function representing people's ritual through various image items called the 'military look'. Second, the meaning of the image communication through military look changed throughout the different periods. During the 1st and 2nd World war the military look supported Fascism by serving as a media representing extreme patriotism and at the same time social images like functionalism, women liberation, regulation and saving. During the cold war period it was used by young progressives like hippies and punks to send an opposing message towards war and commercialism. Since then up to the 80s it was a medium representing the 'new role of women', who possess same social rights and power as the men. However in the 90s the military style had to go through a paradigm transition period. Since this period it got affected by the post modernism and designers, consumers alike adopted military style to create unique beauty. It can also be said that it began to be used as a pure fashion code representing intertextuality. It was rather expressed as a metonymy than a metaphor and combined with elegance and feminine factor, which contrasts to the original military concept, it now represents totally new hybrids such as difference, dissemination and varieties.

**Key words:** Military style, Image communications, Denotative and connotative aspects; 밀리터리 스타일,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명시적/외연적 측면과 함축적/내포적 측면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yoohee21@korea.com

본 논문은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서 론

밀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은 군복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스타일로서 군복 느낌 또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스타일을 일컫는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을 파생시켰으며, 또한 동일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표현 형식과 소통 의미는 끊임없이 변형되었다. 특히 현대복식에 있어 밀리터리 스타일은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명시적/외연적 측면과 함축적/내포적 측면이라는 양자간의 피드백을 만족 시키면서 20세기에 전반에 걸쳐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다양한 양시적인 특성을 띄며 발전하였다.

지난 20세기동안 다양한 스타일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아이템의 디자인 요소에 의한 표현과 아이템들의 조합을 통해 보여 지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착장방식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형성하여 왔다. 특히 밀리터리 스타일은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스타일을 구성하는 아이템, 연출된 통합적 이미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보여 줌으로써,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매개물이 되고, 매개물로 표현된 밀리테리룩은 다시 사람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그들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형상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생성, 교환, 협상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해온 커뮤니케이션 기호로 유추할 수 있다. 20세기 패션에 밀리터리 스타일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계속적으로 다양한 양상의 전쟁이나 나라간의 대치 국면이 발발함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패션의 선도자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밀리터리 스타일을 발표하거나 군복의 요소나 아이টে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였다. 따라서 20세기에 전개된 국가간의 전쟁이나 내전의 양상은 밀리터리 스타일의 다양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밀리터리 스타일은 20세기 패션에 있어서 주요한 패션 트렌드로서 이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우선 군복 자체의 외형적 특성의 변천이나 기능성,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는 군복 형식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 한순자, 이순홍(2001), 김정자(1998)의 연구가 있고, 군복의 기능성 패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에는 권상희, 하지수(2006), 심영환(2004), 구자원

(2002), 최지숙(2002)의 연구 등이 있다. 패션에서 전개된 밀리터리 스타일이나 아이টে의 조형적 특성 연구로는 김지영(2007), 정홍숙, 김정은(1998), 최혜주(1998), 간문자(1997) 등의 연구가 있고, 상징성 및 이미지 전개나 내적사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김혜정(2006), 김혜경, 추미경(2006), 임상미, 추미경(2004), 이화정(2000), 채금석, 이화정(2002)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김소영(2002), 루리(1981/1986), 서명자(2006), Barnard(1996), Davis(1992), Rouse(1989) 등의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패션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많은 선행연구들은 어떤 특정시대나 사상을 한정해 다루거나 최근의 부각되고 있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역할의 특성들을 현재까지 통시적(通時的)으로 고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제1차 대전의 시작에서 현대까지 밀리터리 스타일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국가별 전쟁 양상 및 내전의 전개에 따른 밀리테리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1차 대전이후부터 현대까지 밀리터리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국가별 전쟁 및 내전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국가별 전쟁 및 내전의 전개과정에 따른 밀리터리 스타일의 시대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정리한다. 셋째, 최근 더욱 다양해진 밀리터리 스타일의 기호를 명시적/외연적(denotative) 측면과 함축적/내포적(connotative) 측면으로 연구하여 각 시대별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 광고, 이미지메이킹 등의 분야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더욱 세분화되고 복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실례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다양한 시대적 특성에 따라 이미지 제작자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를 위하여 복식사전, 복식사, 전쟁사와 역사 관련 문헌 등을 고찰하고, 학술 연구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유추 분석하였다.

## II. 패션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 1.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미지’와 ‘커뮤니케이

션'의 함성어로서, '이미지'라는 시각적 기호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사람과 사람들에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측면보다 비언어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언어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시각적 기호는 의복과 패션 이미지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연구들(김소영, 2002; 루리, 1981/1986; 모리스, 1977/1994; 서명자, 2006; 임송미, 2003; Barnard, 1996; Davis, 1992; Eco, 1972; Polhemus & Proctor, 1978; Rouse, 1989; Wilson, 1985)이 패션 이미지가 메시지 생산과 처리, 자아 또는 이미지의 표출, 관계의 표현, 감정의 표현, 혼합된 메시지와 속임,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등을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Saussure 이후 현대 기호학의 방향은 '전달의 기호학(semiologie de la communication)'과 '의미작용의 기호학(semiologie de la signification)'의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호란 '표현(expression)과 내용(content)',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또는 '메시지(message)와 약호(code)'의 양면성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패션을 통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역시 Saussure와 Barthes의 연구에 근거한 기호학적 이중구조, 즉 '명시적/외연적 측면'과 '함축적/내포적 측면'은 패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유용할 뿐 아니라 잡지, 회화, 사진, TV, 영화 등의 다양한 종류의 2차원과 3차원 이미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Barnard, 1996).

## 2. 기호의 이중구조

패션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호의 이중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호의 '명시적/외연적' 측면은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패션의 외적 이미지를 근거로 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며, 의미 원천은 디자이너, 착용자 또는 관찰자, 종교나 정치적 이유로 관제되는 기관에서 만들거나 부여한 의도적인 것이며, 오랜 기간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명시적/외연적 의미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는 적어도 차이가 나지 않는 명백하고 그럴듯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소통될 수 있다.

반면 '함축적/내포적' 측면은 단어나 이미지로 인해 떠올려지는 것이나 단어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연상이다. 즉 기표에 의해 연상되어지는 것으로, 이 기표에 대한 기의는 사람의 성, 나이, 계층, 직업 등에 따라 다른 연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연상은 자신의 주관적 범주에 따라 다른 내포된 의미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히 상호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타인의 '함축적/내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Barnard(1996)는 패션과 의복이 만드는 불체와 이미지는 그것들 자체가 '기표'와 '기의'를 나타내는 기

<표 1> 기호의 이중구조에 따른 의미의 원천과 예시

구분	명시적/외연적(denotative) 측면	함축적/내포적(connotative) 측면
기호	표현(expression), 기표(signifier), 메시지(message), 상징(symbol)	내용(content), 기의(signified), 약호(code), 의미(meaning)
의미 원천	- 디자이너의 의도, 믿음, 감각, 욕구 - 착용자와 관찰자(패션 비평가, 부모나 친구)의 믿음, 희망, 두려움 - 군대, 정부, 종교 등 관계기관의 제도나 규율	- 패션 이미지 그 자체에 내재된 특성 - 기표에 의해 연상되는 정신적인 개념
예 1) 분홍색 vs 파랑색 신발	성(性)을 표시	여성적인 것 vs 남성적인 것
예 2) 빅토리아 시대의 Norfolk Jacket	1수준 - 좁은 라펠, 아웃 포켓, 여러개의 단추, 자켓 주름, 벨트 등의 디자인의 선, 형태, 패턴 요소 2수준 - 1수준으로 만들어진 자켓과 짧은 바지, 긴 양말과 함께 특정한 스타일(= Norfolk Jacket)	<3수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적인 삶의 방식
예 3) <그림 3>과 같은 밀리터리 여성 슈트	1수준 - 배급받은 소재, 각진 어깨의 자켓, 짧은 스커트, 직선적 실루엣 2수준 - 1수준으로 만들어진 밀리터리 스타일, 현대 여성슈트의 원형	<3수준> 여성의 새로운 역할 표현과 권위 주장 현대 여성의 강인한 이미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삶의 방식

호로 간주될 수 있고, 이들은 3가지 수준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Barnard(1996)가 『Fashion As Communication』에서 제시한 기호의 이중구조와 의미 원천을 <표 1>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대의 Norfolk Jacket을 입은 신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첫째, 좁은 라펠, 아웃 포켓, 여러 개의 단추, 주름, 벨트 등의 디자인의 선, 형태, 패턴 요소를 통한 의미를 교환할 수 있고, 두 번째 수준은 1수준의 디자인 요소로 만들어진 자켓은 무릎길이의 짧은 바지와 긴 양말과 함께 입혀져 특정한 스타일인 Norfolk Jacket이라는 의미로 인지된다. 세 번째 수준은 Norfolk Jacket 또는 전체적인 복장은 '기표'로 생각되어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첫째, 둘째 수준은 '명시적/외연적' 의미이고, 셋째 수준은 '함축적/내포적' 의미이다(Barnard, 1996).

밀리터리 스타일도 역시 '기표'와 '기의'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3>과 같은 밀리터리 룩을 입은 여성은 첫째, 배급받은 소재, 각진 어깨 자켓, 짧은 스커트, 직선적 실루엣 등 '기표'를 통해 '딱딱하다', '거칠다', '남성적이다', '실용적이다'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1수준의 특정한 선과 형태, 색상, 소재 등으로 완성된 전체적인 옷차림은 그 자체가 기표가 되어, 1940년대 입혀졌던 '밀리터리 스타일', 현대 여성 슈트의 기본원형이 되었던 것이라는 '기의'로서 '명시적·외연적' 의미를 소통한다. 세 번째 수준의 의미작용은 밀리터리 스타일에 함축적·내포적 의미인 여성의 새로운 역할 표현과 권위 주장, 현대여성의 강한 이미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삶의 방식을 소통하는 것이다.

### 3.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 미치는 요인

패션을 기호학적 모델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Barthes(1973/1990)는 『The Fashion System』에서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순수한' 기호학적인 분석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기호 요소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기호들이 집합적인 가치로 표현됨으로써 의미의 전달자가 된다고 하였다. 모든 의복은 지배계급이나 관습, 착용집단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율에 의해 조직된 기호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서 해석될 수 있고, 그 의미들은 개인적인 요소

와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덧붙여진다(김소영, 2002). 따라서 패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arthes(1973/1990)의 주장처럼 왜, 누가 그 의복을 착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션을 통해 소통되는 의미는 기호들 간의 차이나 관계의 산물이며, 사회적인 동의의 산물이다(Barnard, 1996). 패션 스타일의 의미 생산은 한 아이템을 구성하는 요인, 즉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소재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형성된다. 하지만 선택한 색상과 소재, 디자인이 구성된 한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과의 조합 또는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옷차림에 따라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고, 입혀진 '장소'나 '상황' 또는 '맥락'과 같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커뮤니케이션하게 된다.

### III. 20세기 전쟁발발 원인 및 전개양상에 따른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전개 과정

20세기 전쟁의 양상은 20세기 전반기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파시즘과 민족/민주주의 세력간의 전쟁, 이후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의 양상을 띤 냉전시대의 한국전, 베트남전, 쿠바 봉쇄와 같은 반(反)공산주의전쟁,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시발로 한 4차의 중동전쟁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후반기의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전쟁의 양상은 교전국의 이익에 따라 선동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손실을 야기 하였다. 이와 동시에 20세기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막대한 물자의 소비와 이에 따른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동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반의 집단적이고 선동적인 교전 양식은 점차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일반 시민들이 반전운동에 참여로 인해 인도주의와 평화주의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전개과정을 전쟁 양상에 따라 명시적/외연적 측면과 함축적/내포적 측면의 밀리터리룩의 기호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전쟁양상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특징적 측면에서 분리해서 분석하였다(각 전쟁의 특성을 요약하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미국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다).

**1. 반제국주의와 반파시즘전쟁 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반제국주의와 반파시즘전쟁 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의 이중구조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초 패션은 전쟁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으나 점차로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사회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의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남성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동안 여성들은 사무적인 업무 외에도 경찰, 소방관, 자동차운전 등 남성들이 담당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직장에서 당시 남성복을 그대로 착용하여 남성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2).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절약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라는 의미에서 군복을 그대로 모방한 실용적인 의미의 의상은 발생하였지만 남성복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최첨단의 새로운 패션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추미경, 김혜경, 2007). 따라서 밀리터리 스타일은 남성복을 그대로 착용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16년 샤넬 등에 의해 군복풍의 디자인을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밀리터리 스타일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전쟁과 미국의 군수 산업의 발전 등에 영향을 받아 밀리터리 룩이 나타났다. 여성복에 군인의 유니폼에 사용되었던 견장, 커다란 포켓, 라펠 등의 디테일이 활용되어 군인풍의 의상을 나타냈다. 밀리터리즘의 증가로 일상복은 보다 직선적으로 변해 어깨가 각지고 넓게 바뀌었으며<그림 3>, 남성복의 디테일들이 많이 첨가되어(간문자, 1997) 첨단패션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명시적/외연적 측면들은 2차 대전의 주 발발국이었던 독일의 나치즘이 추구하는 원시적인 힘, 육체의 강인성, 비지성적인 멸사(滅私: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버림)의 이미지(이리예, 1986/1999)를 잘 나타내었으며<그림 4>, 미국의 비롯한 우방국에서도 전쟁 중에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지위향상의 분위기와 여성의 새로운 역할 표현, 여성의 권위주장(채금석, 이화정, 2002)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많이 착용되어져 현대여성 슈트의 기본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제2



<그림 1>



<그림 2>

<그림 1> 1차 대전시 운전복으로 입은 트렌치코트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185.

<그림 2> 비행사복의 여성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42.

<표 2> 탈 제국주의와 반파시즘전쟁 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의 이중구조

시 대	특 성	명시적/외연적(denotative) 측면	함축적/내포적(connotative) 측면
1차 세계 대전	첨단여성 패션으로 발전에는 미흡	소방관이나 운전사와 같은 기능직에 참여하면서 남성복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 boiler suit, 군복, Wing 뺏지	기능성, 애국성, 여성의 사회진출에 의한 새로운 역할 모델 남성적 이미지의 대체에 한정
2차 세계 대전	첨단패션으로 발전하여 현대 여성 슈트의 기본이미지를 만들-군복의 남성적 이미지개성적 여성 이미지로 새롭게 커뮤니케이션됨	짧은 스커트와 넓고 각진 어깨의 테일러드 슈트, 현대여성 슈트의 기본이미지를 완성	우방국에서는 편안함, 강한 이미지의 실용적인 기능복, 여성의 새로운 역할표현, 여성의 권위주장, 반면 전쟁의 도발국인 나치의 육체의 강인성, 비지성적 멸사(滅私)정신을 표현, 반면
		여성이 입은 남성 복장-군복 착용, 남성 테일러드 슈트, 중절모, 벡타이 착용	여성복 스타일에서 느끼지 못한 성적 판타지, 군복의 남성적 이미지가 개성적 여성의 이미지로 새롭게 커뮤니케이션됨
		트렌치 코트, 베레모의 착용	실전에서는 여성 게릴라의 전투적 투쟁심 영화에서는 성공한 여성, 품격 있는 우아하고 고독한 이미지로 사용
		파시스트들의 규제 속에서도 파리의 의상조합은 밀리터리 스타일의 작품발표로 명맥 유지	파리 패션의 자존심을 지키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션의 중심에 진입



<그림 3>

<그림 3> 각진 어깨의 직선적 라인의 여성복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345.



<그림 4>

<그림 4> 나치단원의 여성 유니폼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241.



<그림 5>

<그림 5> 2차 대전시 이태리 여성 파시즘 게릴라들의 트랜치코트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380.



<그림 6>

<그림 6> 영화 속의 이미지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286.

차 세계대전이 치열했던 1940년대에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디자인 및 소재의 사용을 규제하면서 군복 형태의 옷을 입었으며, 파리를 중심으로 한 패션 산업은 중단되어 전쟁 전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제복을 입었다. 여성들이 착용한 모자, 셔츠, 튜닉은 남성들이 착용한 의류와 거의 동일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런 밀리터리 스타일들은 여성들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 반대로 남성복을 통해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이미지와 여성복 스타일에서 느끼지 못한 성적 판타지(최정화, 2006)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파리는 독일에 점령되어 휴업과 타국으로 이동하는 디자이너가 속출하였다. 파리에 잔류한 디자이너들도 겨우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재료 부족과 나치당국의 규제로 인해 활발한 창작활동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파리 의상조합은 이런 통제 속에서도 밀리터리 스타일의 작품발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밀리터리스타일이 오프 쿼트르의 하이패션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군복의 아이템 중에서 트랜치 코트는 밀리터리 스타일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1차 대전을 전후해서는 여성들의 자동차 운전과 같은 야외 활동의 기능성을 위해 많이 착용되었다(그림 1). 2차 대전시에는 파시즘 게릴라들이나 레지스탕스들에 의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저항적의미로 착용되었다(그림 5). 반면, 영화에서는 트랜치 코트의 새로운 이

미지를 창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카사블랑카(1942)에서 잉그리드버그만에 의해서 우아하면서도 고독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대중적 유행을 이끌어내었으며(김지영, 2007), 또 트랜치 코트는 베레모와 함께 그레타 가르보나 케서린 헵번 등에 의해서 남성적이면서 고풍적인 분위기로 연출되기도 했다(그림 6).

## 2. 냉전시대와 탈 냉전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냉전의 시대의 전쟁은 전면전이기보다는 국지 전쟁에 그쳤고, 맹목적인 애국심보다는 격렬한 반전운동이 공존했으며, 반전주의자들과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했다. 냉전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의 이중구조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그 영향권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패션이라는 개념이 거의 말살된 상태로 당원복의 형태를 띤 군복이나 인민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있었다. 반면 서방세계의 패션의 중심은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유럽에서 기성복을 중심으로 한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전 양상을 띤 냉전의 시대는 1950년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전쟁은 아직은 미국인들의 세계평화 유지의 자부심과 경제적 자신감, 애국심에서 치루어졌다. 2차 대전 이후 한국전에서도 사용되어진 미군 공수

<표 3> 냉전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의 이중구조

시 대	특 성	명시적/의연적(denotative) 측면	함축적/내포적(connotative) 측면
냉전 시대	한국전	야전재킷(Field Jacket) 스타일이 유행 하위문화그룹의 전위적인 스트리트 패션으로 발전	활동적, 진보적, 반항적, 자유분방함을 표현
	인도차이나 전쟁	반전운동, 밀리터리 스타일이 기호로 작용하여 슬로건(slogan)화 됨	반전, 저항, 소비와 상업주의, 고도의 기술주의 비판, 사랑과 평화 젊은이들의 허무와 반항
	쿠바혁명/ 쿠바봉쇄	체 게바라가 착용했던 군복 스타일-미 육군복으로 2차 대전이후 착용되었던 스타일, 작업복 셔츠(fatigue shirt), 필드자켓(field jacket), 별을 단 베레모, 탄피벨트, 검은 선글라스	마르크스주의, 반독재, 제국주의의 반대 시대정신의 구현, 혁명영웅, 체 게바라 자체를 자기화, 게릴라 반정부 무장 투쟁
	아프카니스탄 내전	아프카니스탄 코우트(Afghan coot), 카프탄 등의 에스닉 스타일이 군복 아이템과 착용	동양에 대한 반전운동으로 동양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함
탈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해체, 경제적 여유로움, 구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가 표현	하이패션 디자이너의 밀리터리룩-나폴레옹 시대 장교복의 화려한 디테일(금단추, epaulette, branden bourg 등)을 도입한 디자인들이 유행 색상은 빨강이나 검정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함	공산주의의 와해, 제국주의의 화려함에 대한 향수, 오일머니에 의한 경제적 풍성함의 표현-엘레강스한 이미지, 과시성과 엘리트층에 대한 동경
		소련이나 동구권의 군복풍 패션(다양한 색상의 훈장이나 뱃지, 소련풍의 털모자, 가죽이나 퀴팅 소재 활용, 다양한 소재와 패턴)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풍자 전위적인 것, 이국적인 분위기
		줄무늬 티셔츠 등의 해군 스타일의 마린룩이 유행	경제적 풍성함, 휴가의 여유로움을 표현



<그림 7>



<그림 8>



<그림 9>

- <그림 7> 야전재킷이 진과 함께 젊은이들의 전위적인 스트리트 패션화 됨  
자료출처: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p. 452.
- <그림 8> 각종 밀리터리 아이템으로 치장한 펑크  
자료출처: 深井晃子. (2007). *世界服飾史*. p. 113.
- <그림 9> 체 게바라의 베레모를 쓴 히피  
자료출처: Herald. B. (1994). *20th century fashion*. p. 248.

부대의 야전재킷(Field Jacket)은 젊은이들의 패션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 그전 까지 군인들은 긴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거주장스러웠다. 따라서 가족에 따뜻한 모직의 안감을 댄 야전재킷은 보온성과 함께 활동성이 뛰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가죽, 블루진 등의 다양한 소재의 모터사이클용 재킷 등의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였다. 특히 록그룹이나 히피, 펑크 등의 하위문화그룹의

전위적인 스트리트 패션으로 발전 활동적, 진보적, 반항적,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7, 8).  
베트남전이 확대된 1965년 이후 부터는 냉전과 관련하여 미국사회에 흑독한 시련을 가져 왔으며,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전의 참전과 관련하여 미국사회는 찬성세력과 반대 세력간 큰 갈등을 겪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냉전과 전쟁에 반대하는 반면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중장년층은 전쟁을 찬성



&lt;그림 10&gt;

<그림 10> 구 소련의 군복을 과장 함

자료출처: Hiroch Nakano. (1989). *Fashion Show, 89-90. A/W*, p. 103.

<그림 11> 인민복 스타일을 가볍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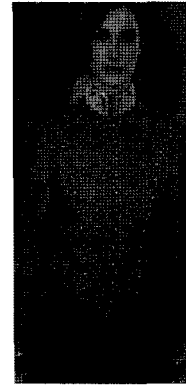
자료출처: Rebecca Moses. (1990). *Fashion Show, 90-91. A/W*, p. 147.

<그림 12> 나폴레옹시대의 군복에서 영감을 얻음

자료출처: Ralph Lauren. (1990). *Fashion Preview, 90-91. A/W*, p. 65.



&lt;그림 11&gt;



&lt;그림 12&gt;

하는 등 미국사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후 쿠바사태, 아프리카사태 등을 통하여 반전운동이 계속되었다. 반전운동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 하였는데, 그들은 의복을 반전운동의 하나의 시각적·언어적 기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밀리터리 스타일이나 아이템은 하나의 슬로건(slogan; 대중의 행동을 조작(操作)하는 선전에 쓰이는 짧은 문구)과 같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논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면도 적지 않으며, 대중은 피암시성(被暗示性)이 강하므로 정서적으로 채색된 의복과 같은 단순한 기호가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전운동은 60년대 후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에 참전 했던 군인들이 낡은 군복을 차림으로 반전 시위에 가담하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군복을 새롭게 환기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의 반전운동에 히피들이 적극적으로 참전하였다. 히피들이 중고시장으로부터 도입한 오래된 털 코트, 크레이프드레스, 군인의투 등의 추레한 차림새로 낡고 커다란 군용 코트와 위장 자켓은 보통 대학생들이 값싸게 사서 입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복장은 시민적 반권위주의, 쾌락주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부에 대한 경멸을 표현한 것이었다(조정미, 2003). 또 쿠바사태에서 체 게바라(Che Guevara)라는 인물이 영웅시되기 시작하자 반전운동과 시민권 캠페인 또 히피의상에서 게릴라 지

도자인 체 게바라를 모델로 한 군복 스타일이 입혀졌다(그림 9). 그가 입었던 군복은 미 육군복으로 제2차대전 이후 착용되었던 스타일로 작업복 셔츠(fatigue shirt), 필드자켓(field jacket), 별을 단 베레모, 탄피벨트, 검은 선글라스 등으로 이것의 함축적/내포적 의미는 마르크스주의, 반독재, 제국주의의 반대. 시대 정신의 구현, 혁명영웅, 체 게바라 자체를 자기화, 게릴라 반정부 무장투쟁(김혜정, 2006) 등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서 양쪽은 전반적인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면서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 공산주의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중국, 동구권이나 구 소련의 군복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그림 10> 중국의 인민복 스타일을 가볍게 표현한 디자인을 내놓았다(그림 11). 이러한 컬렉션들은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풍자, 전위적인 것, 이국적인 함축적/내포적인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프랑스 혁명 200주년 이 오자 나폴레옹시대의 고전 형태 밀리터리 패션이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어 보다 고급스러운 밀리터리 스타일이 패션의 한 트렌드가 되었다(채금석, 이화정, 2002).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는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도입된 나폴레옹시대의 장교복의 화려한 디테일(금단추, epaulette, branden bourg 등)로 표현되었는데, 빨강이나 검정 등의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는 제국주의의 화려함에 대한 향수, 경제적 풍성함을



엘레강스한 이미지, 과시성과 엘리트층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그림 12).

### 3. 중동 분쟁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중동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시발로 한 4차의 중동전쟁이 석유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더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띄게 되었으며, 걸프전의 양상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중동 분쟁은 다른 체제 사이의 분쟁과는 달리 유대인과 아랍민족,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으로 종교적, 민족적 분쟁의 색채가 짙었으며, 풍부한 유전자원 인해 전 세계에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초기에는 패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점차 분쟁이 확산 되고 세계 패션계가 중동의 오일머니에 관심을 갖고 중동의 부자들이 파리 메종의 주요 고객이 되기 시작하자 디자이너들은 점차 중동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6일 전쟁이 일어난 1967년도에 이브 생로랑, 크리스티앙 디올, 니니 리치 등의 디자이너들은 데저트룩(desert look) 혹은 부자들의 사냥 여행을 의미하는 사파리룩(safari look)을 내놓기 시작하며 아랍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그림 13). 이 스타일은 2차 대전 '사막의 여우'라 불리던 롬멜 장군이 지휘하던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의 군복을 주된 이미지로, 사막지대라는 중동의 특성과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도 중동 분쟁은 계속되었지만 베트남전쟁, 탈 냉전시대 등의 큰 이슈로 밀리터리 스타일의 관심은 반전운동과 동구권으로 치우쳤다. 4차 중동전쟁이후 오일쇼크를 지나자 전 세계는 경제적 호황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80년대 이란-이라크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산유국끼리의 전쟁이란 이유로 패션계의 관심에서는 잠시 벗어나 있는것 처럼 보였지만 아르마니 등에 의해 군복의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실용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선을 부각시키지 않는 중동 품의 빅스타일(big style)의 파워룩(power look)이 여성용 테일러드슈트에서 유행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힘이 있는 여성의 이미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다(Kidwell & Steele, 1989).

1990년 초에 발발한 걸프전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멀어졌던 전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밀리터리 스타일이 패션에 다시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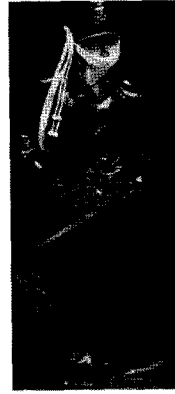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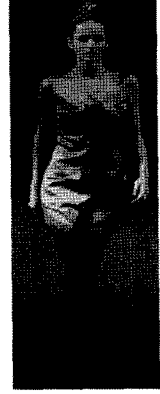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 <그림 13> 사파리재킷

자료출처: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1986). p. 236.

#### <그림 14> 군복 위장무늬의 이브닝드레스

자료출처: Isacc Mizrahi. (1991). *Fashion Preview, A/W, 91-92*. p. 240.

#### <그림 15> 힘과 권력, 선동적인 관능미의 디자인

자료출처: Helmut Lang. (1998). *Mode et Mode, F/W, 98-99*. p. 14.

#### <그림 16> 권위와 위엄을 왜곡시킴

자료출처: Alexander Mcqueen. (2001). *Fashion News, 01-02, A/W*. p. 111.

#### <그림 17> 밀리터리 이미지를 여성적 우아함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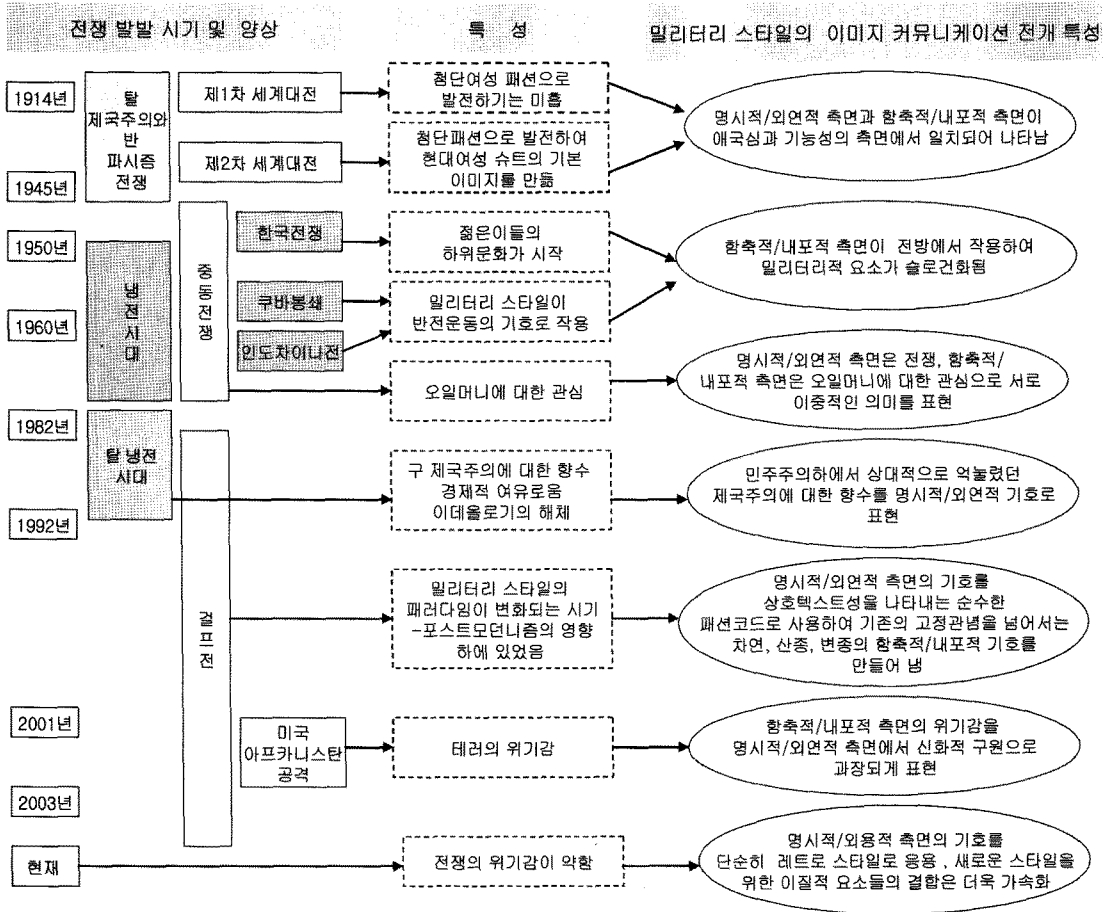
자료출처: Istante. (1996). *Book Moda, 96-97, A/W*. p. 275.

려하게 부활하였다. 특히 이시기는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밀리터리 스타일이 디자이너나 착용자가 독특한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해 차용하거나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내는 순수한 패션 코드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은유보다는 환유로 표현되었고, 밀리터리적인 요소와는 반대되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요소와 혼합되어<그림 17> 기존 패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차연, 산중, 변종의 이중혼합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겔프전이 시작되자 과거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스타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실루엣, 소재, 디테일 등에 있어 상반된 다양한 요소의 믹스 앤 매치(mix & match)가 이루어졌다. 군복 위장무늬의 이브닝드레스<그림 14>나 비키니수영복이 나오면서 밀리터리 스타일의 요소들이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해체주의적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 밀리터리 스타일의 요소들은 이중혼합의 특성을 취하여 다양한 이미지

를 표현하였다. 임상임, 추미경(2004)은 이 시기의 밀리터리 스타일을 파시스트미학에 근거하여 내셔널리즘, 유희성, 신화성, 야만성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채금석, 이화정(2002)은 기존의 남성적 반항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적 이미지까지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볼 때 1990년대의 밀리터리 스타일은 어느 시기보다 함축적·내포적 측면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이고, 남성 영웅주의적 밀리터리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도전 하고자하는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공격적, 권위적, 엘리트적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전투장면의 문양, 십자가를 새긴 가면, 총, 밧줄, 흉갑 등의 소품, 사선무늬 스트라이프 군복, 넓은 카고포켓, 독일 군용모자, 십자 훈장 등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이미지, 남성적인 힘과 권력, 훈육과 복종을 표현, 선동적인 정치성을 띤 유희성과 관능미를 표현하였다(그림 15). 또, 극단적 장신구, 기괴한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혼합하여 공포와 웃음, 혐오와 재미같은 두 가지 감정을 일으켜 남성의 우월성을 표현해온 권위와 위엄을 키치적으로 왜곡하여 성정체성에 저

<표 4> 중동 분쟁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의 이중구조

시 대	특 성	명시적/외연적(denotative) 측면	함축적/내포적(connotative) 측면	
중동 전쟁	1-4차 중동전쟁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	2차 대전시 북아프리카군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데저트룩 혹은 사파리룩	전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중동지역의 기후와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의 표현	
겔프전	이란-이라크 전쟁	전 세계는 경제의호황을 누림 군복의 넓은 어깨와 직선적 라인의 실용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테일러드슈트에 이용	여성지위의 향상-건강하고 힘이 있는 여성의 이미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여성의 이미지	
	겔프전쟁	실루엣, 소재, 디테일 등에 있어 상반된 다양한 요소의 mix & match-군복 위장무늬의 이브닝드레스	밀리터리 스타일의 요소들이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며 의외의 의미를 전달 -탈 중심주의, 해체주의	
	이라크 전쟁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시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었음	전투장면의 문양, 십자가를 새긴 가면, 총, 밧줄, 흉갑등의 소품, 사선무늬 스트라이프 군복, 넓은 카고포켓, 독일 군용모자, 십자 훈장	공격적인 이미지, 남성적인 힘과 권력, 훈육과 복종을 표현, 선동적인 정치성을 띤 유희성과 관능미
			극단적 장신구, 기괴한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혼합	공포와 웃음, 혐오와 재미 같은 두가지 감정을 일으킴, 남성의 우월성을 표현해온 권위와 위엄을 왜곡-키치 해체주의, 성정체성에 대한 저항
		영웅적인 모습의 군인과 같은 밀리터리룩 차용한 여성복	군인의 영웅적 모습에 자신을 투사하고 싶은 여성의 의지를 표현, 성 정체성의 해방- 영웅성, 신비적 감정, 엄격성.	
		바디컨셔스 라인 또는 미니스커트의 신체 노출과 조화된 밀리터리룩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밀리터리 이미지와 대비로 여성성, 관능미, 로맨틱한 측면을 더 돋보이게 표현	
미국 아프가니스탄 공격	테러의 위기감	중세의 잔 다르크를 연상하는 금속장식의 갑옷 스타일이 등장-뉴 밀리터리룩의 등장	9.11사태와 같은 대형 테러에 맞서는 전사의 이미지	
현재-전쟁의 위기감이 없음		명시적/외용적 측면의 이미지 기호들을 단순히 응용하고 차용하는 방식새로운 스타일의 창조를 위한 밀리터리 아이템들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은 더욱 가속화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큰 흐름인 자연주의, 자유로운 개성 표현, 기능주의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림 18>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전개 특성

향하였으며<그림 16>, 바디컨서스 라인 또는 미니스커트 등의 신체 노출과 조화된 밀리터리룩이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밀리터리 이미지와 대비된 여성성, 관능미, 로맨틱한 측면을 더 밖으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되게 표현되었다.

2001년 9.11사태가 발발하자 전 세계는 테러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신화에서 나오는 여전사 이미지의 밀리터리 스타일을 내놓았다. 이는 함축적/내포적 측면의 위기감을 명시적/외연적 측면에서 신화적 구원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표 4).

IV. 결 론

현대의 중요한 패션 테마이자 패션 기호인 밀리터리

스타일은 지난 1세기 동안 국제적인 전쟁이나 내전, 또는 전쟁의 위기감이 촉발할 때 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리터리 이미지 기호는 Barthes(1973/1990)와 Barnard (1996)의 주장처럼 기호요소 그 자체로서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기호들의 차이나 관계 또는 기호들의 집합적인 가치로서 의미가 형성되었고, 착용했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착용한 사람에 따라 소통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등장한 ‘시기’, ‘장소’,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함축적/내포적 의미를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전개 특성을 <그림 18>과 같이 정리하였다.

탈 제국주의와 반파시즘전쟁의시기인 1, 2차 세계대전 시기는 군복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착용한 명시

적/외연적 기호를 통해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권위, 역할의 확대를 드러내었다. 둘째, 국민들의 애국심, 강인성, 투쟁심을 고취하거나 직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이전에 여성복 스타일에서 느끼지 못했던 개성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성적 판타지를 위해 군복의 남성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넷째,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 편안함, 실용성을 위한 것이었다.

냉전의 시대와 탈 냉전시대의 밀리터리 스타일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은 맹목적인 애국심보다는 격렬한 반전운동이 존재했던 시대로 함축적/내포적 측면이 전방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외연적 밀리터리 요소들이 슬로건화하여 반전주의자들과 패션 디자이너, 착용자들은 다양한 밀리터리 기호로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세계평화 유지의 자부심과 애국심의 상징이었던 미군군복의 야전 자켓은 젊은이의 활동성, 진보성, 반항성,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둘째, 히피들은 군복을 통하여 반전과 저항, 소비와 상업주의, 젊은이들의 허무와 반항을 강하게 드러냈다. 셋째, 미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체 게바라가 영웅시 됨에 따라 그가 착용했던 미군복과 아이템들은 역설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반독재, 제국주의의 반대, 시대정신의 구현, 혁명적 영웅을 숭상하는 의미로 일반인들에게 입혀졌다. 넷째,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의 밀리터리룩을 통해 탈냉전시대, 공산주의의 와해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중동 분쟁시대 이후 현재까지의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는 그 동안 사상적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치중되어 함축적/내포적 측면에 비해 한때 상대적으로 소외시 되어온 밀리터리 스타일의 명시적/외연적 측면을 사용하여 중동의 오일머니와 문화에 대한 관심 표현하거나 독특하고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한 차용, 이종혼합,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순수한 패션 코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중동전쟁시 밀리터리 스타일은 명시적/외연적 측면은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의 군복을 주된 이미지로 한 데저트 스타일(desert style)로 나타났지만 함축적/내포적 측면은 오일머니로 파리 패션계의 큰 고객인 중동부자들의 사파리를 위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개되어 서로 이중적인 의미를 소통하는 것이었다. 둘째, 디자이너는 제국주의 시대의 아름다운 군복들의 이미지를 화려하게 부활하거나 소련의 군복이나 중국의 인민복 이미지들

은 자유롭게 과장되거나 희극화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특히 걸프전은 발발된 시기는 위와 같은 경향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더욱 심화된 시기로서 밀리터리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즉 실루엣, 소재, 색상, 디테일 등에서 군복 요소가 명시적/외연적 기호로 나타나지만, 이는 군복 위장무늬가 이브닝드레스나 비키니수영복 등에 표현된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종혼합 또는 상호텍스트적 나타나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네 번째, 이전처럼 직접적이지 않지만 밀리터리 스타일 기호는 여전히 남성이나 군복이 지니는 힘, 권력, 우월성, 영웅성, 엄격성 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여성성이나 여성의 관능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영웅적인 모습이나 다양한 군복 아이템, 넓은 어깨와 직선적 실루엣, 전투장면의 문양, 총이나 밧줄, 극단적인 장신구나 디테일 등의 기호를 통한 공격적인 이미지, 남성적인 힘과 권력, 훈육과 복종의 표현은 성 정체성의 저항 또는 관능미 표현, 권위와 위엄, 엄격성의 왜곡과 키치, 페티시한 관능적 에로티즘,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나타내는 차연, 산중, 변종의 새로운 함축적/내포적 기호를 만들어 내었다.

큰 전쟁의 위기감이 없는 현재의 밀리터리 스타일은 디자인 요소 기능적 특성상 편안한 내추럴리즘과 인간 공학적 설계의 기능적인 스포츠/캐주얼웨어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트랜치코트, 사파리재킷, 비행복, 전투복, 블러즈재킷 등의 아이템들이 다양한 여성적 소재나 아이템들과 결합하여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큰 흐름인 자연주의, 자유로운 개성 표현, 기능주의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간문자. (1997). 여성패션에 표현된 밀리터리룩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1), 119-128.
- 구자원. (2002). *한국군의 개인장구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전투복 및 개인군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상희, 하지수. (2006). 현대군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전쟁양상과 군복디자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식*, 56(9), 143-156.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

- 을: 교문사.
- 김소영. (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자. (199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서울: 민속원.
-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2007). 클래식 패션으로서의 트랜치코트(trench coat)에 관한 연구. *복식*, 57(9), 49-66.
- 김혜정.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아이콘화에 대한 연구. *복식*, 56(3), 1-11.
- 김혜경, 추미경. (2006). 20세기 초반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34-40.
- 루리, 엘리스. (1981). *의복의 언어*. 유대순 역 (1986). 서울: 경춘사.
- 모리스, 데즈먼드. (1977). *팬위칭-인간행동을 관찰한다*. 과학세대 역 (1994). 서울: 까치.
- 서명자. (2006).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체계 연구: 영화<Star Wars> 여자 주인공 의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영환. (2004). *한국군복의 위장성 향상을 위한 패턴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리에, 아키라. (1986).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이종곡, 조진구 옮김 (1999). 서울: 을유문화사.
- 이화정. (2000).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상임, 추미경. (2004). 밀리터리룩에 표현된 파시즘-1990년대 이후 부터-. *복식문화연구*, 12(5), 845-858.
- 임종미.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나 기호분석-1990년 이후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홍숙, 김정은. (1998). 제2차 세계대전시의 여성복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 여성연구소 연구논총*, 7, 33-35.
- 조정미. (2003). Hippism의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123-136.
- 채영석, 이화정. (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19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52(1), 103-115.
- 최정화. (2006). 여성패션에 나타난 남성적 요소의 특징과 의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5), 513-522.
- 최지숙. (2002). *육군 전투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주.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룩의 조형미 연구-1990년대 패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미경, 김혜경. (2007).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 연구. *복식*, 57(8), 137-151.
- 한순자, 이순홍. (2001). 서양군복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3), 458-484.
- 深井晃子. (2007). *世界服飾史*. 東京: 美術出版社.
-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 Barthes, R. (1990). *The fashion system* (M. Ward & R. Howard, Tran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Eco, U. (1972). Social life as a sign system. In Robey, D. (Ed.), *Structuralism* (pp. 198-199). London: Jonathan Cape.
- Herald, B. (1994).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astford.
- Istante. (1996). *Book Moda*, 96-97, A/W, p. 275.
- Kidwell, B. C. & Steele, V. (1989).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Lang, H. (1998). *Mode et Mode, F/W, 98-99*, p. 14.
- Lauren, R. (1990). *Fashion Preview, 90-91. A/W*, p. 65.
- Mcqueen, A. (2001). *Fashion News, 01-02, A/W*, p. 111.
- Mizrahi, I. (1991). *Fashion Freview, A/W, 91-92*, p. 240.
- Moses, R. (1990). *Fashion Show, 90-91. A/W*, p. 147.
- Nakano, H. (1989). *Fashion Show, 89-90. A/W*, p. 103.
- Polhemus, T. & Proctor, L. (1978). *Fashion and anti-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 Rouse, E. (1989).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SP Professional Book.
-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1986). New York: Abrams.
- Wilson, E.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 Worsely, H. (2004). *Fashion-100: Jahre Mode*. Königswinter: Königmann.